

법령 제·개정 동향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840호, 2026. 10. 2., 공포]

[공포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능형교통체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 기술동향 검토, 연구·개발 및 산업화·표준화 지원 방안
 5.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 관련 사업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
3.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후관리) ① 제5조에 해당하는 시·군등은 사업 완료 후 도지사에게 사업 추진 결과 및 예산 사용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시행 2027. 3. 23.] [법률 제21965호, 2026. 9.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에 따른 해당 도로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0조의3(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제50조의4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소관 도로관리청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국내외 ITS

월간토픽

2026년 9월은 AI·ITS 기반 교통안전 고도화와 자율주행·UAM 등 미래 모빌리티 실증이 본격 확대된 한 달이었다. 국내에서는 부산·대구·광명 등을 중심으로 AI 신호제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자율주행 셔틀과 UAM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시민 체감형 스마트 교통서비스가 확산됐다. 해외에서도 뉴질랜드의 전국 단위 교통관리시스템 고도화와 싱가포르의 자율주행차 확대, 유럽의 지속가능 교통정책 강화 등 데이터·자동화 기반 모빌리티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국내 토픽

강원도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성화 조례' 공포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조례가 공포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ITS 기본계획 수립, 시군 및 공공기관 등의 ITS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추진 결과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19일부터 강릉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이후 도내 ITS 관련 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MBC 강원영동, 2026.10.4.)

서울시설공단, AI 기반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세계에 알린다

서울시설공단이 인공지능(AI)과 170만 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의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보수하는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국제 무대에 선보인다. 공단은 드론 및 AI 영상 분석 기술 등을 접목해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향후 위험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관리하고 있으며, 정릉천 고가도로 시뮬레이션 결과 기대수명을 최대 29년 연장하고 약 1,2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오는 9월 열리는 'IABSE Congress Incheon 2026'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해 관련 기술과 성과를 알리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일보, 2026.8.28.)

내년 자율주행 실증차 3000대로 확대...정부, 미래 모빌리티 투자 속도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 자율주행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실증차량을 올해 200대 수준에서 3,000대로 15배 확대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실제 서비스 적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UAM 실증 기체 도입과 버티포트 구축을 통해 2028년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세우는 한편, AI 드론 개발 예산 증액과 실내 자율비행 훈련센터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의 기술 혁신과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대폭 앞당길 계획이다. (IT조선 2026.9.1.)

아산시, 1조 원 규모 'AI 모빌리티 실증 콤플렉스' 추진... 미래차 거점 도약

충남 아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와 함께 약 1조 원(9,99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구축형 R&D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2028년부터 2034년까지 AI 기반 자율주행 차량의 연구개발부터 성능 검증, 실증, 양산에 이르는 전주기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산시는 기존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역량과 연계해 자율주행 및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 미래 모빌리티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방침이다. (충청타임즈 2026.9.6.)

류경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 단위 운영으로 확장해야"

카카오모빌리티 류경선 대표가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자율주행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개별 차량의 주행 기술을 넘어 서비스와 도시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도시 단위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단순한 기술 도입만으로는 상용화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도시 공간·인프라·규칙의 재설계와 함께 기술·제조·공공·학계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축적한 독자적 기술과 현장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자율주행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일상 속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테크월드 2026.9.7.)

강릉 ITS 세계총회 이후,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구현 강조

오는 10월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계기로 강릉이 미래교통·첨단기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 자체보다 시민 생활의 실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ITS와 AI를 활용해 교통정체·주차·대중교통 운영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위험구간 분석과 재난 대응에도 드론·CCTV·센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규 기술 도입 시 예산 효율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총회 이후에도 시민이 교통·안전·행정 등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강원도민일보 2026.9.8.)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개소 점검...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는 교육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개소를 점검하고,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전년 36개소에서 93개소로 확대됐으며, 도로환경·교통안전시설·운전자 안전대책 등을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표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 정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현장점검과 후속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2026.9.14.)

장성군,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기반 지역안전망 강화

장성군이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8회 교통사회안전대축전' 사회안전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장성군은 실시간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감지하는 선별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와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사회재난 대응훈련 및 취약시설 점검 등을 병행해 지역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경찰·소방·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현장 점검과 관제체계를 고도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뉴스위커, 2026.9.11.)

강릉 ITS 세계총회 맞춤형 K-MaaS 앱 출시...철도·버스·택시 예약·결제 통합

국도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강릉시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에 맞춰 외국인·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는 한국형 통합교통서비스(K-MaaS) 앱을 출시한다. K-MaaS는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검색하고 철도·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실시간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교통서비스다. 특히 약 90개국 6만 명이 참석하는 세계총회를 계기로 국제행사 특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지역 중소도시의 교통이용 활성화와 인바운드 관광 확대를 지원하는 모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도교통부, 2026.9.16.)

대구시, 서대구역 중심 UAM 지역시범사업 본격 추진

대구시는 서대구 KTX역 인근을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입지로 선정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국도교통부 '지역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 등 지역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구·경북 공동사업으로 서대구~왜관IC~김천을 잇는 약 61km 운항노선을 구축하고, 산불 감시·재난 구호·고속도로 교통관리·치안 관리 등 공공 수요 중심의 UAM 서비스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29년까지 운항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30년 시범운항을 시작해 안전성과 시민 수용성을 검증한 뒤, 향후 관광·교통·물류 등 민간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로봇신문, 2026.9.16.)

강릉 ITS 세계총회, 중소도시형 ITS 모델 제시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에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개최된다. 강릉시는 인구 20만명 규모의 중소도시이면서 연간 관광객이 약 3,300만명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관광객 급증과 고령화, 교통약자 문제 등에 대응하는 '중소도시형 ITS'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359개 교차로에 온라인 신호제어기를 구축하고 스마트교차로 100개소, 스마트횡단보도 26개소 등을 운영 중이며, 실시간 신호정보를 주요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AI 기반 실시간 교통량 분석과 신호제어, 자율주행 서비스, 국내외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해 ITS의 실증 성과와 해외 확산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MTN뉴스, 2026.9.20.)

대구시, 긴급자동차 스마트 우선신호시스템 2,100여 개 교차로 구축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긴급자동차의 출동시간 단축과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대구시 전역 2,100여 개 교차로에 '긴급자동차 스마트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교통신호를 제어해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되며, 총 30억 원을 투입해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시 교통국, 대구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이 협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에서 현장 대응시간을 줄이고 지역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코리아플러스방송, 2026.9.21.)

부산시, AI·ICT 기반 ITS 고도화...교통안전·재난대응 강화

부산시는 총 29억 원을 투입해 AI와 ICT를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실시간 교차로 정보제공 서비스와 지능형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침수 위험 교차로 11곳에는 AI 영상분석 기반 침수검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험물·대형 폐기물 운송차량의 위치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실시간 신호제어와 스마트 감응신호 시스템 도입으로 시범구간의 교차로 지체시간이 최대 36% 단축되고 신호 위반도 약 27% 감소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25개 교차로의 신호 잔여시간 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내비게이션과 차량 내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확대했다. (뉴스선데이, 2026.9.23.)

광명시, 철산역~광명동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광명시는 10월 7일부터 철산역과 광명동굴을 잇는 12.3km 구간에서 15인승 전기 자율주행 셔틀버스 'GM1' 운행을 시작한다. 셔틀버스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4회 운행하며, 7호선 철산역과 KTX 광명역, 오리서원·충현박물관·기형도박물관·광명동굴 등 주요 교통·관광 거점을 연결한다. 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맞춰 도로 통신장비, 정밀지도, 온라인 신호제어기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 자율주행 데이터 실증과 시스템 안정화도 완료했다. 향후 운행 경험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로보택시·로보셔틀·UAM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계해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 2026.9.28.)

해외 토픽

중국, 신규 규제로 스마트차 센서 디자인 자율성 확대

중국 당국이 라이다·카메라 및 차량-사물 통신(V2X) 안테나 등 스마트차 센서 하드웨어에 대한 규격을 일부 완화하는 신규 국가 표준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및 차량-도로 협력 기술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및 배치 자유도를 높여 완성차 업체들이 한층 다양하고 효율적인 차량 외관 및 시스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규정은 202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중국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과 하드웨어 고도화를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CnEVPost, 2026.8.31.)

칠레, 디지털화 통한 대중교통 차세대 도약 방안 논의

칠레의 산티아고 지하철(Metro de Santiago), 칠레 국영철도(EFE) 등 주요 교통 당국과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중교통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AI, 데이터 분석,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중교통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및 스마트 인프라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다루어졌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칠레의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Hitachi Energy / Press Release, 2026.8.29.)

메이 모빌리티, 자율주행 'e-팔레트' 일본 도로 운행 본격화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메이 모빌리티(May Mobility)와 NTT 모빌리티가 2026년 토요타의 자율주행 'e-팔레트(e-Palette)'를 일본 실도로에 최초로 투입한다. 양사는 운전자가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인증을 목표로 일본 내 여러 지역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친환경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의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Self Drive News, 2026.9.3.)

우버·웨이브, 영국 최초 런던서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 개시

우버(Uber)가 영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웨이브(Wayve)와 손잡고 영국 최초로 런던에서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안전 감독을 위해 전문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포드 머스탱 마하-E 전기차가 투입되며, 승객들은 기존 우버 앱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을 선택 및 이용할 수 있다. 양사는 복잡한 도심 도로 환경에서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도쿄 등 글로벌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완전 무인 로봇택시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Future Transport-News, 2026.9.3.)

센센, 멜버른에 난폭·소음 운전 단속 ‘훈 카메라’ 도입

호주의 AI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 센센 네트워크(SenSen Networks)가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일대에 불법 소음 차량 및 난폭 운전(Hoon) 단속을 위한 ‘소음 단속 카메라(Hoon Cameras)’를 2년간 시범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은 AI 영상 분석과 음향 감지 기술을 결합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기 소음 차량 및 도로 위 위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식별한다. 센센은 빅토리아주 환경보호청(EPA) 및 경찰과 협력해 도심 소음 저감과 도로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스마트 시티 관제 솔루션의 적용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ITS International, 2026.9.8.)

뉴질랜드, 전국 단위 교통관리시스템 고도화...18,500km 도로망 통합 운영

Kapsch TrafficCom이 뉴질랜드 교통청(NZTA)의 교통관리시스템을 Dynac V17으로 고도화하고 오클랜드 교통운영센터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 18,500km의 도로·고속도로와 7개 터널, 오클랜드 하버브리지, 약 15만 개의 카메라·VMS·교통센서 등 현장 장비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체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온라인 반영 기능을 도입해 운영 안정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높였다. 향후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인근 교통운영센터까지 확대해 센터 간 연계 운영과 국가 교통망의 시스템 이중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Traffic Technology Today, 2026.9.11.)

유럽 모빌리티 위크 25주년...지속가능 교통과 이동권 확대에 초점

‘유럽 모빌리티 위크(European Mobility Week)’가 9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유럽을 비롯한 2,500여 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모든 연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보행·자전거 이동환경 개선, 친환경·접근성 높은 대중교통 확대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있으며, 9월 22일 ‘차 없는 날(Car Free Day)’로 마무리된다. 2001년 시작된 이 행사는 보행공간 확대,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자전거 네트워크 확충, 학교 주변 교통정온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지속가능 교통정책 확산을 지원해왔다. 올해도 포르투갈·독일·룩셈부르크 등 각지에서 어린이·고령자 참여형 이동 프로그램과 자동차 통행 제한, 30km/h 구역 확대 등 지역 맞춤형 활동이 추진된다. (Travel Tomorrow, 2026.9.16.)

Grab, 싱가포르 자율주행차 50대로 확대...운행지역 확장 추진

Grab은 향후 6개월 동안 싱가포르 자율주행차(AV) 운행 차량을 기존 10대에서 50대로 5배 확대하고, 현재 풍골 지역 중심의 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기존 차량은 싱가포르 도로에서 누적 11만km 이상 자율주행했으며, 1만2,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경험했다. Grab은 정부기관과 협력해 풍골 지역에 AV 전용 차고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전·배달 파트너를 대상으로 안전요원과 원격운영자 등 자율주행 관련 직무 전환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와 일반 운전자를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모빌리티 전략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동남아 전역에 수천 대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배치한다는 목표다. (Grab, 2026.9.15.)

공공조달 발주동향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6.9.30.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일반용역	End-to-End 자율주행 데이터 가공 용역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0,000,000	2026. 10. 14.
일반용역	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간선 화물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 재공고	(재)지능형자동차부품 진흥원	500,000,000	2026. 10. 13.
일반용역	2027년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514,305,000	2026. 10. 22.
일반용역	2026년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시스템 목표시스템 전환 고도화 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824,400,000	2026. 10. 27.
일반용역	2026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872,300,000	2026. 10. 13.
일반용역	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저감 기술 연구용역	한국공항공사	1,501,060,000	2026. 10. 15.
일반용역	2027년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통신시설 유지보수	수협중앙회	90,000,000	2026. 10. 26.

한국도로공사

업무	공고명	사업수행기관	사업규모	입찰마감일
용역	2026년 ITS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본사	363,960,000	2026. 10. 22.

End-to-End 자율주행 데이터 가공 용역

과업개요

- (과업명) End-to-End 자율주행 데이터 가공 용역
- (개요) 국방에 필요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를 민·군협력으로 개발하고 산출물을 군에서 사용 후 타 산업분야로 확산, 국내 AI 생태계에 기여
- (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0.
※ 과업기간은 실제 계약체결 시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100,000,000원 (VAT 포함)
-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요약

- End-to-End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자율주행 차량의 라이다, 멀티뷰 카메라 등 센서 데이터 정밀 라벨링
- 신호등 정보·시나리오 캡션 구축 및 ID 매핑
- 동적·정적 객체 3D 박스, 차선·횡단보도, 3D Occupancy 데이터 가공

문의처

- 사업 관련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미래모빌리티센터 강수현(TEL. 031-759-9064)
- 입찰 및 계약 관련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시설운영팀 홍석진(TEL. 031-888-9008)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물류 거점 간 간선 자율주행 화물 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

과업개요

- (용역명) 물류 거점 간 간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화물 운송(미들마일) 운영 실증 용역
-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7.6.30.(9개월)
- (예 산) 금500,000,000원(금오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

과업목적

- 대구지역 내 물류 운송 서비스의 시범적 운영을 통한 전국 최초 물류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 도심·산단 연계 구간에서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 안정성, 운송 효율성, 물류 현장 적용성 확인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21.9km², 133.25km 구간*)
*서대구산단,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물류거점 간 운송구간(북구, 동구, 달서구, 서구, 수성구, 달성군 일원) 등
-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 2027.6.30.(9개월)
- 내용적 범위 : 과업지시서 상 지정된 지역 내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및 화물 운송 운행

문의처

- 과업 관련 : 이진영 053-670-4784
- 입찰 관련 : 손형일 053-670-7814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시스템 목표시스템 전환 고도화

일반사항

- (과업명) 2026년 수요응답형대중교통 시스템(TS-DRT) 목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고도화
- (기 간) 착수일부터 2027.12.31.까지(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착수일 ~ 2026.12.31.까지
 - 2차년도 : 2027.01.01. ~ 2027.12.31.까지
- (예 산) 824,4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90%, 가격 10%), 장기계속계약

과업목적

- 기존 보조금 정산 시스템에서 합승형(버스형)DRT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목표시스템으로 고도화 구축
- 목표시스템은 호출, 자동배차, 결제, 환류까지를 전제로 하나, 본 사업의 경우 긴급도가 높은 핵심 기능(호출, 자동배차)을 우선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잔여 기능은 향후 고도화 단계에서 검토

과업내용

- 승객용 모바일 APP 고도화(1차년도), 기사용 모바일 APP 고도화(2차년도)
- 실시간 배차 및 최적 경로 생성 기능 구현(2차년도)
- 웹 기반 통합 관제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2차년도)
- 기존 시스템(TS-DRT) 구현기능 승계 및 데이터 구축·이관(2차년도)
- 테스트 및 교육 기술지원(2차년도)
- 확장 가능성을 대비한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설계(공통)

문의처

- 보충정보 제공처: 모빌리티연구처 송승진 선임연구원(054-459-7447)
- 계약 관련 :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054-459-7221)

ITSK NEWS



ITS Korea,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국내 ITS 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허청회, 이하 'ITS Korea')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유·무선 통신기기 분야 LTE-V2X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ITS Korea는 LTE-V2X 관련 공인시험을 수행하고 KOLAS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ITS 기업에 국제기준에 따른 시험·검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해당 성적서는 국제상호인정체계(ILAC-MRA)에 따라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 국내 ITS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중복 시험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ITS Korea는 국내 ITS 기업의 시험·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LTE-V2X 공인시험 서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ITS Korea 허청회 회장은 "ITS 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인증 기반은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이번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계기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시험·검증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 ITS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미래모빌리티 표준·시험인증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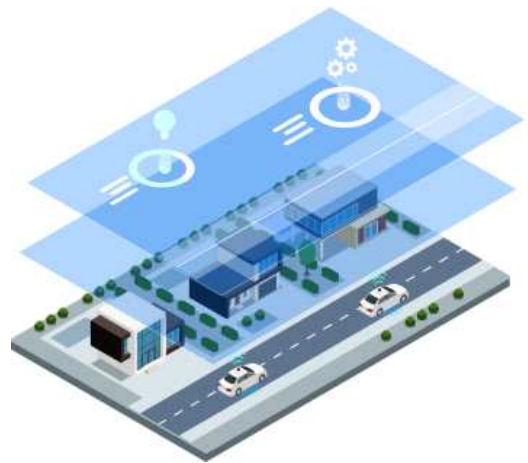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허청회, 이하 'ITS Korea')는 9월 30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와 교통·미래모빌리티 분야 표준화 및 시험·인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AI, V2X 등 교통·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변화에 대응해 TTA의 ICT 표준화·시험인증 역량과 ITS Korea의 ITS 현장 전문성 및 표준화·적합성평가 역량을 연계하고, ICT와 ITS 분야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술·정보 교류 ▲ICT·ITS 융합 표준화 협력 ▲시험·인증 분야 협력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허청회 ITS Korea 회장은 “이번 협약은 ICT 표준화·시험인증 전문기관인 TTA와 ITS 현장 전문성을 보유한 ITS Korea가 손을 잡고 미래모빌리티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ICT-ITS 융합 표준화와 시험인증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ITS 기술의 활용성을 높여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교육 일정 안내



2026년 10월 교육일정

연번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비
1	미래 교통 UAM 기술	10.13(화) 1일(6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4,400원
2	C-ITS 위치기반 서비스 반응형 웹 프론트엔드 개발	10.13(화)~14(수) 2일(14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56,370원
3	비전 및 데이터 AI 활용 역량 강화	10.16(금) 1일(4h)	협회 교육장 (604호)	20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무료
4	공유 모빌리티 기술	10.16(금) 1일(7h)	협회 교육장 (604호)	14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090원
5	AI 기반 자율주행 판단 및 경로계획	10.21(수)~23(금) 3일(21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무료
6	ITS 프로젝트 관리	10.27(화)~28(수) 2일(16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63,400원
7	AI 딥러닝 기반 영상처리 기초	10.27(화) 1일(6h)	협회 교육장 (604호)	14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3,690원